

醫員을 향한 多重的 視線과 他者的 慾望*

- 치병설화에 나타난 醫員觀을 중심으로 -

이인경**

- I. 머리말
- II. 의원을 향한 다중적 시선
 - 1. 명의를 향한 경외와 열망, 그리고 냉소
 - 2. 의원의 자의식 표출과 서사적 재현
- III. 의원에게 투사된 타자적 욕망의 이중성
- IV. 마무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헌과 구비로 전승되는 치병설화에 나타난, 의원을 향한 진승자(서술자)의 다중적인 시선과 타자적인 욕망을 분석해 본 것이다. 그 결과, 치병설화에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의들에 대한 경외심과 그런 명의를 만나 병을 치료하고픈 병자의 열망이 강하게 드러나 있었다. 또한 문헌설화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시선만이 아니라, 본래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매우 무식하고 가난했었지만 왕의 난치병을 치유하거나 신비한 약을 개발하여 일약 높은 벼슬자리를 얻거나 큰 부자가 되는 명 의들의 인생역전극에 대한 질시와 폄하의 냉소적 시선도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비설화에서는, 의술을 仁術이 아닌 致富의 수단으로 여기는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부교수(한국문화와문화전략연구소)

부도덕한 의원의 탐욕을 신랄히 고발하는 비판적 시선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문헌설화의 서술자가 주목한 의원들과, 구비설화를 전승해온 민중이 마주치거나 상상한 의원들의 형상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문헌설화에서는 미친한 신분에서 갑자기 출세한 명 의들에 대한 질투가 드러나는 반면, 구비설화에서는 의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짙게 투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헌과 구비자료를 막론하고 치병설화에는 의원들의 자의식 분출을 서사적으로 재현하는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서 의원들의 불안한 자아정체감과 신분적 열등의식 그리고 직업적 사명감과 위기의식을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의 문헌설화에서 살펴본 의원을 향한 서술자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에 비해, 상당히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치병설화에는 의원을 향해 투사된 타자들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욕망이 담겨있다. 즉, 의원이란 모름지기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는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병자를 살려내는 직업적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는 타자의 욕망이다. 또한 비록 그 자신은 평생 동안 절대적 빈곤과 싸우며 근근이 생계를 잇는 형편이었지만 언제나 무료진료에 적극 나서는 철저한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을 갖춘, 民衆醫들을 칭송하고 열망하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치병설화에는, 의원들을 신분적으로 미친한 존재라며 폄하하면서도 그들의 도움은 무상으로 받고자 하는, 이중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타자적 욕망이 숨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치병설화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고통을 해결하는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仁德濟世의 上醫의 형상을 숙고하게 한다. 요컨대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보다 공정하고 온당한 시선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핵심어 : 치병설화, 서술시각, 타자적 욕망, 구비설화, 문헌설화, 전승자, 다중적 시선

I. 머리말

본고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¹⁾와 문헌에 실린 治病說話들을 대상으로 그 속에 투영된 전통시대 의원을 향한 전승자(서술자)의 다중적인 시선과 타자적인 욕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치병설화의 전승양상이 포괄적으로 드러나고, 개별 작품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명의 또는 의원의 치병행위나 명의의 위업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²⁾ 특히 곽의숙은 다양한 치병설화자료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논의를 펼친 바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하데, 명의에 대한 민중의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머무르고 의원을 향한 서술시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³⁾ 최근에 필자는 이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집중되어온 선행연구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의 의료행위’보다는 병자의 ‘치병체험의 의미’와 ‘병자에 대한 타자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 치병설화를 새롭게 분석한 바 있다.⁴⁾

-
- 1) 『한국구비문학대계』의 “212-3 병을 잘 고치는 명의” 유형으로 분류된 각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2) 명의설화(名醫說話)에 대한 연구는 강진옥, 『명의답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 출판부, 1983이 선편(先鞭)을 잡았다. 이후로 구비설화에 나타난 명의 전설을 고찰하거나 치병에 대한 민중의식을 추출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김병수, 『구비명의전설 연구』, 경산대학교 석사논문, 1997 ; 이지연,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구현희·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명의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1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그리고 이경희, 『문헌에 나타난 명의설화의 유형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제13권 3호(통권21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에서는 문헌설화에 나타난 명의(名醫)를 유형화하였으며, 김현룡, 『한국문헌설화』1권, 건국대출판부, 1998에서는 ‘훌륭한 의술’을 주제로 문헌설화를 유형별로 소개하였다. 박수진·이선아·안상우, 『곽정기산에 얽힌 허준설화』,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13권 1호(통권19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에서는 허준에 대한 문헌설화를 모아 소개하였다. 또한 최기숙, 『『호산외기』의 서술방식과 인간관 : 19세기 중인 문화의 건강성과 고유성에 대한 발건』, 『열상고전연구』제22, 열상고전연구회, 2005에서는 『호산외기』 소재 의원들에 대한 논의가 거시적으로 이루어졌다.
 - 3) 곽의숙, 『한국의료설화 연구』, 동의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논문, 2008에서는 구전과 문헌의 명의설화를 모두 모아 그에 담긴 상징성과 민중의식을 추출하고 문헌과 구비자료의 비교연구를 시도했다.
 - 4) 필자는 이인경, 『口碑 “治病說話”의 의미와 기능』, 『국문학연구』제23, 국문학회, 2011과 이인경, 『治病說話 ;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者를 향한 他者的 시선』, 『어문논총』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에서, 치병설화에 담긴 다층적 의미와 병자에 대한 타자적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해왔던, 전통사회의 의원을 향한 전승자들의 다층적 인식과 서술자의 시선을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의원을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타자적 시각에 더욱 주목하고자 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명인들의 신이한 치료능력과 그 의미를 조명하거나 民衆醫들이 펼친 의로운 仁術을 부각시키는 데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치병설화에 대한 필자의 최근 논문은 ‘의원’이 아닌 ‘병자’들에 대한 타자적 시선을 분석한 것이어서, 본 논의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사실 치병설화는 질병치유 과정을 전달하거나 재현하는 서술자(화자)의 주관적 시선을 통해서 서사가 전개되는바, 타인의 치병경험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이는 본질적으로 내가 아닌 ‘병자와 의원’이라는 ‘타자의 서사’로서 나타나게 된다.⁵⁾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의원’이라는 타자를 향한 서술자(전승자)의 다층적인 시선을 분석해냄으로써, 그 속에 투영된 타자들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타자를 향한 인간의 모순된 시선과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자기성찰의 문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문헌과 구비 설화자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삶의 조건과 가치관이 상이한 전승자(서술자)에 따른 시선의 차이도 측정해보기로 한다. 문헌자료가 양반식자층 남성들의 인식과 욕망을 바탕으로 일상경험이나 사실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데 비해, 구비설화는 민중들의 욕망과 세계관이 허구적 상상력을 매개로 재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에 대한 양자의 인식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자아가 그들이 대면한 삶의 양태를 해석하는 데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였는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두 논문에서 치병설화의 연구사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치병설화의 연구사에 대한 논의는 앞에 제시한 필자의 두 글과 광의숙의 앞의 글을 참조해주시 바란다.

5) 이에 대해서는 이인경, 『治病說話 :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者를 향한 他者の 시선』, 『어문론총』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인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援助者를 애타게 찾게 된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생로병사의 질곡을 견디며 살아가는 張三李四들에게 의원이란 존재는 곧잘 그런 구원자의 형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亂世가 영웅을 탄생시키듯이, 難治病은 숨어있던 神醫를 세상 속으로 불러내곤 한다. 그러나 난세가 평정되고 나면 곧 영웅의 이름이 사라져 버리듯 의원이란 존재도 그와 대동소이한 처지에 놓이기 마련이다.

이처럼 인간은 영웅의 등장을 희구하며 동경하고 숭배하지만, 또한 그를 질시하며 전복시키려는 모순된 욕망도 함께 지니곤 한다. 더욱이 그 영웅이 처음부터 고귀한 신분이 아니라 ‘개천에서 난 용’에 해당한다면 더욱더 그런 경향이 드러난다. 요컨대 세상 사람들은 영웅적 행위의 시체를 갈구할 뿐, 영웅의 희생이나 그의 고독한 내면에는 별로 주목하려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모순된 욕망이 치병설화에서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본다.

II. 의원을 향한 다중적 시선

1. 명의를 향한 경외와 열망, 그리고 냉소

명 의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치병설화를 통해서 놀라운 의술에 대한 진승자들의 경외심을 읽어낼 수 있다. 아래 구비설화에서는 세쌍둥이의 출산을 순조롭게 유도해낸 명 의의 신묘한 침술이, 출생한 아이들의 서열까지도 정확히 구별해내는 경이로운 효과까지 발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1) 만삭이 된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은 산기가 있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 죽을 지경이었다. 이에 시아버지가 명 의를 찾았다. 명 의는 부인이 누운 널바닥에 침을 세 대 꽂았다. 얼마 후 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시아버지가 보았더니, 아이 셋이 태어나 있었다. 머느리는 아이들이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싸우는 통에 아픈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아이들의 위아래를 구별하기 위해 고민

하였는데, 한 아이는 이마에 침자리가 있고, 다른 아이는 가슴에 침자리가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엉덩이에 침자리가 있었다. 이것으로 첫째와 둘째, 셋째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⁶⁾

화자는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산모의 뱃속 사정을 명확히 꿰뚫어보는 명의의 신묘한 의술을 부각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여인들의 생명이 빈번하게 희생되곤 했던 전통사회에서, 난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을 진료하는 의원은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동시에 구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놀라운 의술을 높이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래의 설화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사람을 구하는 명의보다도 한 수가 위인 ‘이미 죽은 자’를 살려내는 신의가 등장하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이미 죽은 자를 되살려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생사회복을 관장하는 신의 영역에 근접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신묘한 명의들은 신의라고 불릴 만한 것이다.

2) 초하 허준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간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같이 놀던 다른 아이가 그 아이를 때려서 죽였다고 의심을 받아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되어서, 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초하는 침을 놓아서 간이 떨어져 죽은 아이를 살려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말하게 하여 오해를 풀게 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을 빼서 다시 죽게 하였다.⁷⁾

초하는 죽은 자를 되살려내어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준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는 침을 빼서 다시 저승으로 되돌려 보낸다. 염라대왕도 아닌 의원이 이렇게 죽은 자를 되살리는 엄청난 의술을 시도한 것은,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숨’을 지켜내기

6) 『구비대계』 1-4, 809면, <선동이 구별>, 최유봉 구연.

7) 『구비대계』 1-1, 798면, <초산당 초하침>, 강성도 구연.

위함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⁸⁾ 여기에 등장하는 신의는 인간의 억울함을 돌아보고 해결해주는 정의로운 구원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3) 곽여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사관의 집에서 병이 난 사람을 고치러 오라는 명을 받았다. 곽여형이 이에 응하지 않자 큰 용이 와서 그를 데려갔다. 그가 사관 부인의 병을 낫게 해 주었다. 그는 축지법을 쓰듯이 걸기도 하고 침술에 능하였다.⁹⁾

위의 설화에서는 침술에 능했고 축지법까지도 쓸 줄 알았다는 곽여형이 등장하는데, 용이 그를 모시고 왕진을 갈 정도로 대단히 신묘한 의원이었다고 묘사된다. 그는 마치 신선 같은 異人이나 神人の 이미지로 그려진다.

4)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려고 모든 방법을 써 보았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금강산 신령이 현몽하기를 ‘이경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들은 이경하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자, 맹물을 담은 그릇에 ‘감히 이경하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병자에게 마시게 했다. 우연히 그 집에 들른 이경하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경하가 신분을 밝히고 침을 놓아서 병자를 치료해 주었다.¹⁰⁾

위 설화에는 ‘감히 이경하탕’이라고 이름 붙인 맹물에 의지해서라도 병마를 물리치고 싶었던 민중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자신들이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강산 신령이라는 신적 존재와 이경하라는 비범한 인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민중의 간절한 열망이 물씬 묻어나는 이야기이다. 이는 실제로 백성들이 명의의 진료를 받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일이었음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¹¹⁾ 그런 까닭

8) 이인경, 『口碑 ‘治病說話’의 의미와 기능』, 『국문학연구』제23, 국문학회, 2011, 199~200면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

9) 『구비대계』 7-14, 254면, <곽여형 전설>, 변수철 구연.

10) 『구비대계』 1-4, 398면, <감히 이경하탕>, 최영길 구연.

11)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의원들은 모두 宮中御醫였다는 점에서 일반민중의 삶과는 거리

에 구비설화에서는 명의를 만나 병을 치유하는 과정이 상당히 과장되게 허구화되곤 한다. 명의들은 그저 침 한 대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단번에 치료하는 것이다. 이런 신의 능력에 견줄 만한 이인과 조우하고 그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기대는 것이 민중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로 형상화되고 있다.

아래의 문헌설화에서는 백화주라는 異界가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면서 등장인물들 역시도 상당히 환상적으로 묘사된다. 등에서 盤松이 자라나는 병을 앓는 왕의 기괴한 모습이나 끊임없이 술이 나오게 하는 신비로운 돌의 등장에서 보듯이 이 설화는 매우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서 정진사가 신이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5) 자하동에 사는 정진사는 서화, 의약, 악기, 바둑, 점술에 통달하였는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백화라는 미소년이 찾아와 부친의 병을 살펴달라고 하여, 함께 배를 타고 낯선 땅에 도착하였다. 백화는 白華州의 태자였는데 백화주의 왕에게는 소나무를 오랫동안 삶아먹은 후 등에서 盤松이 자라는 병이 있었다. 정진사가 “도끼 백 자루를 가마에 넣고 냉수 한 독을 부어서 백 묽음의 나무로 불을 땀 다음에 그 물을 왕의 등에 난 소나무에 뿌리고 등을 씻고 그 물을 마시게 하라.”고 처방하였다. 이는 五行說의 ‘金克木’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왕의 등에 난 소나무가 점점 마르더니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깨뜨려졌다. 왕이 기뻐하며, 그릇에 담아두면 항상 향기로운 술이 가득 차게 한다는 酒石을 선물로 주어 돌려보냈다. 선비는 다시 양화도로 되돌아와서 이 주석으로 평생 즐겁게 살았다.¹²⁾

가난하게 살았던 정진사가 병을 고쳐주고 얻은 주석으로 평생 즐겁게 살

가 멀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名醫는 고사하고 한의학 지식을 갖춘 의원에게서 진료를 받는 일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제대로 공부한 의원들은 주로 양반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데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名醫를 만나게 되는 것은 명의가 서울을 떠나 유람을 다닐 때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였음을 설화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인경, 앞의 글, 210면.

12) 『(주해)청구야담』 I, 최웅 외 편, 국학자료원, 1996, 372~381면 ; 『(국역)청야담수』1, 301~308면.

았다는 결말도 주목할 만하다. 왕이 정진사에게 부귀를 누리며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살라고 하자, “부귀는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사랑하니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합니다.”라며 비록 높은 벼슬이나 아름다운 누대와 집이나 황금과 백옥으로라도 정진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서술되고 있다. 병을 고쳐주고 의원이 부자가 되었다는 세속적 결말이 아닌, 술을 마시며 평생 즐겁게 살았다는 마무리는 신선의 삶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정진사는 일반 백성들의疾苦를 치료하는 의원과는 거리가 먼 허구적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문헌설화에서는 주로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명의로 등장하고 있는바, 神人, 異人, 義人의 면모를 지닌 명의로 유형화되기도 하였다.¹³⁾ 다음 문헌설화에서는 望診만으로도 병자의 生死를 알아보았던 신만의 신묘한 의술을 부각시키고 있다.

6) 申曼의 자는 만채인데 의술이 神明하여 환자를 보면 그 생사를 알았다. 歲時에 신만이 고모부 부제학 이지향의 부인에게 세배를 갔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는 금년 4월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웃으며 하직하고 떠났다. 부제학의 손자인 이진이 그 사람을 약을 써서 고쳐달라고 하자 신만이 동 의보감을 가져 오라고 했으나 마침 책이 없어 약을 짓지 못하고 말았다. 그 사람은 결국 4월에 죽었다. 그 후 이진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神醫를 만나고 도 生道를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 죽음이 마땅하다’ 하였다.¹⁴⁾ (『청구야담』 識死期申舟村知音)

13) 이경희, 『문헌에 나타난 명의설화의 유형분석』, 『한국한의학연구논문집』 제13권 3호 (통권21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이 글에서는 名醫를 神人型, 異人型, 義人型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인품과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바, 신인형 명의설화로는 초월적인 존재인 노학구와 결합한 허준설화, 백화국이란 신성공간의 과제를 해결한 정진사 설화, 신성공간에서 천연두의 비법을 배워서 임금을 치료한 유상설화가 해당한다. 이인형에는, 신성공간을 통과하지 않고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만이 강조된 김응립과 신만, 이동, 안찬의 설화가 해당한다. 의인형 명이는 조광일, 백광현, 이익성과 같은 의원을 들었다.

14) 청구야담의 자료는 최웅 외 편, 『주해 청구야담』 I · II · III, 국학자료원, 1996에 주로 의거하였다.

그해 4월에 죽을 것이라는 신만의 예언을 그저 웃음으로 대꾸하며 흘러 보냈던 이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사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고 있었기에, 年初에 듣게 된 ‘그해 봄을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처럼 병자 자신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 병세를 단지 望診만으로 알아낸 신만의 의술은 신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神醫라고 일컬어지는 신만의 놀라운 의술이 실제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도 되지 못했던 사정이 드러나 있다. 진단은 정확하였어도 결과적으로 병자를 치료할 수는 없었던 신만의 한계가 엿보인다.

7) 柳甯은 젊어서 의술로 이름을 얻었다. 嶺伯의 冊室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노새가 인도하는 대로 한 집에 들어가 주인의 醫書를 훑쳐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노새를 타고 관교에 이르니 궁중에서 사람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임금의 마마로 위중한데 꿈에 神인이 나타나 강변에서 유상을 기다리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었다. 대궐로 들어가는 길에 한 노파가 마마에 걸린 아이가 감꼭지를 달여 먹고 나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전날 산중에서 훑쳐본 의서에도 있던 내용이었다. 유상은 임금에게 감꼭지를 달여 먹여 병을 고치고 명의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靑丘野談』 聽街語柳醫得名)

위 문헌설화는 두창을 치료하는 의원으로 이름이 높았던 유상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설화를 “신성한 공간에서 신이한 존재인 노인의 도움으로 神妙性を 획득한 유상은 현실공간으로 돌아와서 임금님의 두창을 柿蒂湯으로 치료함으로써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현실에서 주어질 과제를 신성한 공간에서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미리 습득하여 온 것으로 유상의 신성성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다.”¹⁵⁾라고 분석한 이경희의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설화의 서사적 논리에 따르면 유상이 숙종의 滯症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유상 자신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¹⁶⁾ 이

15) 이경희, 앞의 글, 33면.

설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본질적 주제는 숙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天佑神助이지 유상의 신이한 의술이 아니다. 유상이 행한 의술이란 그저 남의 醫書에서 훑쳐본 내용과 우연히 귀동냥을 한 노파의 치병체험담을 왕의 치료에 그대로 적용해본 것에 불과하다. 이는 반드시 의원이 아니라도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시도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상은 스스로 위대한 의술을 지닌 신이한 명의가 아니라, 왕을 救命하려는 天命을 받들어 수행한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인물로 폄하되는 것이다. 또한 굳이 서술자가 유상이 의서를 “훑쳐보았다.” 라거나 노파의 말을 우연히 “엿들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명의로서의 유상의 면모를 실추시키고 있다. 유상에 대한 서술자의 시선이 자못 뼈뺏해 보이는 것이다.

다음 문헌설화에서는 중기치료로 유명했던 피재길의 행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미천한 신분이었던 피재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제대로 된 의술을 공부하지 못한 채 다양한 재료로 고약을 만들어 중기를 치료하였다.

8) 皮載吉은 그 부친이 중기 치료에 이름이 났지만, 부친이 사망할 당시는 어려서 그 의술을 다 전수받지 못했다. 뒤에 모친이 보고들은 것을 재길에게 전하여 가르쳐주었다. 하지만 재길은 의술에 관한 책을 읽지 못했고 단지 여러 약재를 모아 달여서 고약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었고, 의원의 항렬에는 들지 못하였다. 정조가 계축년 여름에 머리에 중기가 생겨서 침약을 다 썼으나 효과가 없어서 점점 얼굴까지 번지고 말았다. 이때 한 관원이 피재길을 임금에게 아뢰어 그를 임금 앞에 불러들이니, 재길은 賤人이라서 一身을 떨고 땀이 흘러서 능히 아뢰지 못하니 모든 의원들이 그욕이 웃었다. 정조가 가까

16) 이에 대해서 “유상이 숙종의 滯症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명의라서가 아니라, 適時에 등장한 흡사 관음보살을 연상케 하는 노파의 告知 덕분이었다. 이런 서사전개는 유상이 숙종의 병을 치료하게 되는 필연성과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부잣집 독자의 죽음과 숙종의 漚유라는 상반된 결과는 바로 왕의 도덕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天佑神助의 결과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유상이라는 인물의 놀라운 의술이 아닌, 숙종의 치병과정에서 발현된 天命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논의한 바 있다. 이인경, 『治病說話 ;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者를 향한 他者的 詩선』, 『어문론총』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61면.

이 불러 상처를 보게 하고, “두려워 말고 네 재주를 다하라.” 하니, 재길이가 살피고서는 응담을 약에 섞어 고약을 만들어 와서 붙였다. 왕이 묻기를, “머칠 정도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니, 피재길이 “하루 만에 통증이 가라앉고 사흘이면 낮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과연 그대로 나왔다. 왕이 “이는 가히 名醫이고 약은 가히 神藥이라. 그 공로를 의논하라.” 라고 하였다. 피재길이 중6품의 외직 무관벼슬을 얻으니 內醫들이 모두 놀랐다. 피재길은 이후 나라에 크게 이름을 떨쳤고, 그의 응담고약은 千金의 값으로 세상에 전해졌다. (『靑邱野談』 進神方皮醫擅名)

이 설화에서는 피재길의 천한 신분이 강조된 전반부와, 뛰어난 고약을 개발하여 왕의 종기를 치료한 덕분에 벼슬도 받고 부자가 된 피재길의 성공담이 서술된 후반부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약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으며 의원 축에도 끼지 못했던 천한 신분의 피재길이, 왕을 알현하게 되자 맘을 홀리며 별별 떠는 장면이 강하게 초점화 되고 있다. 왕 앞에서 찢찢매는 피재길을 지켜보며 은밀한 비웃음을 짓는 內醫들의 심리적 우월감은, 친인 피재길이 중6품 벼슬을 除授 받는 장면에서 이르러서는 ‘놀라움’으로 표출된다.

천민 피재길이 벼슬도 받고 천금의 돈을 벌어들이게 된 人生逆轉의 성공 드라마를 전해주는 이 설화는, 병자를 치유하는 仁術人의 고귀하고 헌신적인 삶보다는 천민이 세속적 성취를 이루게 된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가난하게 사는 一字無識의 천민이 立身揚名하게 되는 사연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신이한 의술에 대한 찬탄과 경이라는 표면적 주제 말고도 피재길에 대한 은근한 폄하와 질시의 多重의 시선이 혼재하고 있다.

9) 李同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해 자로써 불렀다. 글을 몰랐으나 종기를 고치는 의원으로 이름이 세상에 퍼졌다. 그는 침과 뜸 말고는 손톱, 터럭, 오줌, 똥, 침, 때 따위의 약재를 사용하였고, 비록 풀이나 나무, 벌레, 물고기를 쓰더라도 모두 한 푼에 지나지 않았다. 정조임금이 일찍이 치질이 있었는데 이동에

게 명하여 그것을 살피도록 하였다. 이동은 갓을 벗고 엎드려 상처를 살폈는데, 머리털이 다 빠져서 상투를 만들 수 없었다, 임금이 웃으면서 탕건을 주어 머리를 덮게 하였다. 치질이 다 아문 후에 호조의 돈 십만을 내려주니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겼다.¹⁷⁾

위 설화 역시 증기치료로 유명했던 李同의 미친한 신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동은 글도 모르는 자인데, 주변의 하찮고 더러운 것들을 약재로 사용하여 증기를 치료했다고 한다. 그가 사용한 약재들은 한의학에 바탕을 둔 전통적 약재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으로, 그가 한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소한 것으로 증기를 잘 치료했다는 점에서 그의 뛰어난 의술이 부각되고, 이렇게 비천하고 무식한 이동이 왕의 병을 고친 덕에 십만 냥을 얻게 되자 사람들이 이를 영광으로 여겼다는 세속적인 내용으로 종결된다.

왕의 치질 치료를 위해 애쓴 덕분에 머리털이 다 빠져서 상투를 만들 수 없었다는 자못 과장된 서사전개는 이동을 戲畫化하고 있다.¹⁸⁾ 이동은 임금의 향문에 자주 머리를 처박느라고 대머리가 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자신의 상투를 희생하면서까지 성심껏 왕을 치료한 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퇴색되고 있다.

10) 金遂良은 선조 연간에 흑과 옴 같은 병 치료에 이름이 났다. 윤인동이란 사람이 목에 흑이 생겨서 김수량이 치료하여 그 흑을 제거했는데 혈관을 잘라서 피를 많이 쏟은 뒤 쇠약해져서 일 년쯤 지나서 죽었다. 어숙권이 목에 흑이 두어 개 생겼는데, 의원들이 보고서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육칠 년 간 문지르고 약을 바르고 하여 고통이 매우 심했다. 그러나 점점 더 커지고 또 옆에 작은 것도 생기자 화가 나서, “죽고 사는 것은 명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두었더니 일 년쯤 지

17) 조희룡, 『壺山外記』,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한길아트, 1999, 118~122면.

18) 이에 대해서는 이인경, 『治病說話』;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者를 향한 他者的 시선, 『어문론총』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66면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나서 자연히 없어졌다. 이후 삼십여 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오히려 자연에 맡겨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김수량이 이 혹을 치료했으면 반드시 수술하여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패관잡기』 권2)

앞에서 살펴본 명의들의 설화와는 판이하게, 위의 문헌설화에서는 김수량이라는 의원에 대한 서술자의 차가운 서술시각이 부각되고 있다. 의원에 대한 이런 불신과 냉소적인 시선은 아래의 문헌설화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11) 成均館洞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나이 사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짐치는 이에게 물으니 평생에 자식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여인이 그 말을 믿었는데 어느덧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여 배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있는 듯했다. 의원에게 갔더니 벌레의 독이라 하면서 약을 먹으라 하였다. 또한 침을 잘 놓는 의원에게 갔는데, 침을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헛 찌를 뿐이었다. 여인이 아파 울부짖으며 벌레를 끄집어 낼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였다. 이윽고 유혈이 낭자해지며 남자아이가 땅에 떨어지며 울었다. 점술과 의술은 가히 믿지 못할 것이다. (『於于野談』 成均館洞有一女)¹⁹⁾

여인의 임신사실을 알지 못한 의원이 침을 잘못 놓아서 결국 태아를 死産시키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현상이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침술과 의술은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철저히 불신되고 있다. 평생 자식이 없을 것이라고 한 점쟁이의 말을 맹신한 탓에 여인은 자신의 임신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믿음 탓에 결국 돌팔이 鍼醫를 찾아가서 늦은 나이에 갖게 된 귀한 아들을 의료사고로 잃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수많은 의원들 중에는 능력이 미비한 이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여기에선 의술 일반이 부정되는 성급한 일반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출중한 실력의 의술을 갖춘 의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능

19)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외 옮김, 돌베개, 2009와 유몽인, 『어우야담』, 이월영·시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6에 의거하였다.

력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앞 다투어 의원 행세를 자처하던 부조리한 사회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서술자의 이런 냉소적 시선은 사회적으로 賤視되던 鍼醫들을 卑下하는 심리적 기저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구비설화에서는 비록 의술은 뛰어나지만 인격은 그렇지 못한 부도덕한 의원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다. 아래 설화에서 명의로 등장하는 이경화는 본성이 탐욕스러워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12) 옛날 평양에 이경화라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다. 그는 묘향산에서 도를 닦았는데, 스승이 생각하기에 이경화에게 책을 주면 세상 돈을 다 끌어다먹고 백성을 못살게 할 것 같아서, 다른 제자에게 책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이를 눈치 채 이경화가 그 제자를 죽이고 책을 빼앗았다. 하루는 이경화의 형이 대낮에 난간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죽었다. 그의 조카가 와서 삼촌 이경화에게 자기 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하였다. 이경화가 형을 살려주는 대신 황소 한 마리를 달라고 하면서, 황소를 치료비로 내지 않으면 처방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조카는 이경화가 삼촌으로서 너무 매정하다고 하며, 몽둥이로 때려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이경화가 이를 두렵게 여겨서 할 수 없이 조카에게 형이 잠깐 자리를 석 질만 파라고 지시하였다. 거기에서 형의 피를 빨아먹은 지렁이를 잡아서 그 피를 형의 입에 넣으니 형이 다시 살아났다.²⁰⁾

이경화의 탐욕적인 성정을 간파하고 그가 놀라운 의술을 터득하게 되면 이를 미끼로 백성을 괴롭힐 것을 염려한 그의 스승이, 秘傳이 담긴 책을 다른 제자에게 전하려 하였지만 이경화가 살인을 하고 그것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충격적이다.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얻으려고 살인을 한다는 모순적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바로 이경화의 의술이 생명존중이 아닌 致富를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황소를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비록 형일지라도 치료해줄 수 없다는 이경화에게는, 혈육의 생명보다 돈이 상위의 가치였다. 그에게 의술이란 철저히 이윤추구의 수단일 뿐 봉사와 헌신의 仁術이 아니었던 것이다. 가난한 백성들은 活人의 사명감보다 이윤추구에 골

20) 『구비대계』 2-7, 132면, <명의 이경화>, 김응화 구연.

몰히는 탐욕스런 의원들과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²¹⁾ 위 설화에는 그런 절망적 사회현실에 대한 전승자들의 비판적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2. 의원의 자의식 표출과 서사적 재현

세상에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분명히 존재하는바 인간의 醫術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容認하지 않는 냉혹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전통사회 의원들의 불안한 자아정체감을 설화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권력자의 난치병을 치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했던 의원들의 직업적 위기의식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13) 중국 황후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 사람이 중국에 갔다. 그 사람은 흑시 병을 못 고치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약재료를 말하였다. 잣 위에 떨어진 기러기 똥, 거꾸로 서있는 소나무, 황하물이 가늘게 흘러나가는 파락수가 그것이었다. 결국 구하지 못할 줄 알았던 재료들이 준비되어서 그것을 달여 먹게 하여서 황후의 병이 나아다. 나중에 보니 그제 바로 천지만물탕이었다.²²⁾

21) “지역 의원 중에는 양반출신이면서 스스로 의술을 익혀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儒醫 같은 신분이 등장하였고 대개는 중인출신으로서 의술을 세습하여 의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과 의술만으로 이름을 알린 천민출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앙으로의 관료진출이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중앙의 의관 수는 『경국대전』의 81과에서 77과로 감소하였고 양반 출신의 유학자들 역시 과거에 입격해 진출할 관직 문은 좁을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오히려 경제적인 실리추구에 유리하였고, 출신성분을 막론하고 회소했던 이들 의원들의 지역 내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잦은 전염병과 일상의 질병에 대해 관의 의료 시혜만을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즉 지역 내 사설 의료 인력이나 다른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보영, 『조선후기 지역 민간의료체계의 발전사』, 『국사관논총』107, 국사편찬위원회, 2005, 123면.

22) 『구비대계』 6-6, 380면, <천지만물탕으로 중국황후의 병을 고친 명의>, 오금열 구연.

위 구비설화에서 중국 황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조선인이 중국에까지 갔다는 서사전개는, 황후의 병이 넓은 땅인 중국의 수많은 의원들조차 고칠 수 없는 지독한 난치병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의원은 그런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 황후를 살려내지 못하면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절박한 위기에서 그는 도저히 구해올 수 없을 것 같은 희귀한 약재를 처방하는 절묘한 방책을 생각해내었는데, 치병에 실패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예상과는 달리 그런 약재가 실제로 준비되었고 다행히 이것이 효험을 발휘하여 황후를 치료하게 되는 극적인 종결을 이루는데,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천치만물탕을 처방했던 것이었다. 물론 이런 서사전개는 우연을 통한 행운의 취득이라는 민담적 낙천성에 의한 것이다.

이 설화에서 황후의 병은 의원의 놀라운 의술 덕분에 치료되었다기보다는 우연히 이루어진 天佑神助의 결과로 이해된다. 즉, 황후의 생명은 하늘이 살려준 셈이며, 처음부터 황후는 살아날 운명이었던 것이다.

한편 중국의 전설적 神醫인 扁鵲의 일생을 기록한 『史記列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편작이 놀라운 의술로 사람을 구하자, 천하가 모두 편작은 능히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편작은 “越人(편작의 이름)은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그것은 스스로 당연히 살 수 있는 사람을 월인이 일어나게 하였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²³⁾

위의 기록에 따르면, 편작은 ‘스스로 당연히 살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의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신의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개인의 生死를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살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유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의원들에게 그런 능력의 한계성을 쉽게 용인해주려 하지 않는다. 특히 병자가 권력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상황이 심각했던 사정을 아래의 구비설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23) 司馬遷, 『扁鵲·倉公列傳』, 『史記列傳』, 남만성 역, 을유문화사, 1983, 492면.

14)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나이 마흔에 매우 가난하여 아내와 10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기로 하였다. 그는 강원도 산중의 절에 들어가서 그 곳에서 10년간 살기로 하고 그 절의 도사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그가 집 생각이 간절해서 8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기한을 채우지 못하였다며 문전박대하고 쫓아냈다. 쫓겨난 그는 어느 논주인에게서 밥을 얻어먹다가 거기에서 일하던 부인의 병을 고쳐주고 백 냥을 사례로 받게 되었다. 그는 사양하고 석 냥만 받고 길을 떠났다. 그는 장안으로 들어가 남은 돈으로 술을 마시다가 거기에 살던 김정승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김정승이 그를 자신의 집에서 1년 반 동안 머물게 해주었다. 아내와 약속한 10년을 다 채우고 집에 간 그는, 김정승이 자신의 집을 새로 지어주고 재물을 보내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집 구경을 하다가 그를 가르친 도사를 만났는데, 도사가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것은 임금이 병이 들었을 때 고치지 못하면 그가 쉰 살까지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안맹을 핑계대고 치료를 거부하기 위함이었다. 그 도사 덕분에 그는 부인과 평생 동안 잘살았다.²⁴⁾

주인공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혹을 넘긴 나이에 아내를 떠나 入山 修道하여 얻은 능력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사례비로 백 냥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석 냥만 받아서 길을 떠난다. 비록 가난을 벗기 위해 연마하게 된 의술이었지만, 정작 그 의술로 병자를 치료하여 생긴 백 냥을 거절하고 떠나는 주인공의 태도는 의미심장하다. 가난했기에 10년을 기약하고 집을 떠나야 했고 아내가 보고 싶어서 8년 만에 되돌아갔다가 쫓겨났던 그에게, 백 냥이란 돈은 정말로 큰 유혹이었을 것이다. 그 돈을 갖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법도 한데, 그는 단지 석 냥만을 받고 길을 떠난다. 또한 우연히 김정승의 아들을 치료해주고서 그곳에 기숙하게 된다는 서사전개는, 자신의 의술을 致富나 名利를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는 그의 가치관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약속한 10년을 채우고 집에 돌아간 그는 김정승이 새 집도 지어주고 재

24) 『구비대계』 7-12, 664면, <도사 덕택에 부자 되고 봉사 된 이야기>, 김진호 구연.

물도 보낸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의술로써 그렇게 치부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눈이 멀게 된다. 이는 임금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신살에 죽게 될 것을 염려한 도사의 배려였던 것이다.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고 아내와의 약속도 우직하게 지킨 착한 의원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런 민담적 주제는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하늘이 준 壽命대로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의원이 시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서사전개는 상당히 무겁고 진지하다. 구비설화에는 이처럼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민중의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짙게 드러나곤 한다. 평범한 백성이 왕을 알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미친한 신분 일지라도 일단 명의로 이르면, 왕의 치병을 위해서 불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실제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 목숨을 보전하려면 의원이 자신의 시력을 희생시켜서라도 왕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 설화의 주장은, 그런 역설적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되묻게 한다. 병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자신도 함께 죽게 되는 명의의 직업적 운명이 가혹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한편 아래 설화에서는 난치병 환자를 피해서 줄행랑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의원의 사정이 드러나고 있다.

15) 명의 이석환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서 바싹 말라서 손가락만한 쥐나 개구리처럼 생긴 남편을 품에서 꺼내어놓으며 고쳐달라고 하였다. 이석환은 치료법을 몰라 의서를 보고 고쳐주겠다고 하여 돌려보낸 뒤 집에서 도망쳤다. 이석환이 도중에 잠시 쉬는데, 등이 맞붙은 두 사람과 한 아이가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 등이 맞붙은 두 사람이 말하길, 이석환에게 자신들의 병을 고치러 가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이가 이석환이 축골증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도망갔다고 하였다. 그러자 등이 붙은 두 사람이, 축골증은 人乳에 몸을 담가두면 낫는다고 하였다. 이 말은 들은 이석환이 집으로 돌아와서 축골증 환자를 고쳐주었다.²⁵⁾

위 설화는 자신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희귀병을 앓는 병자와 맞닥뜨

25) 『구비대계』 3-3, 340~347면, <명의 이석환>, 이원식 구연.

리고 그 치료법을 알 수 없을 때, 의원들이 겪게 되는 직업적 위기의식을 조명하고 있다. 못 고칠 병이 없는 명의라고 이미 소문이 나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인 명의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감은 자못 심각할 것이다. 이석 환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친다. 명의가 마치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절대적 존재인 양 인식되는 사회분위기가 가하는 압박감이 얼마나 과중한 것인지 짐작되는 부분이다. 도망을 치다가 우연히 정보를 얻은 덕에 이석 환이 축골증 환자는 다행히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²⁶⁾, 그 다음에 직면할 ‘등이 맞붙은 두 사람’의 병은 또 어찌 치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타인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기대는 사실 그 당사자에게 너무도 험거운 짐을 지우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문헌설화에에는 본래 미천한 신분으로서 명의가 된 의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래는 미천하고 가난한 이들의 아픔은 정성껏 돌보았지만, 권력을 쥔 벼슬아치들에게는 오직 禮로써 자신을 대할 때에만 의술을 베풀었다는 뜻깊은 자존심을 지닌 이익성의 이야기이다.

16) 이익성은 정조 때 사람으로 젊어서 가난하였기에 어느 벼슬아치의 집에 식객으로 있었다. 당시 뛰어난 의원이었던 허조가 그 집 주인의 병을 고치러 왕진을 왔는데, 익성에게 담배 피우는 일의 수발을 들게 하였다. 익성은 “내가 비록 미천하지만 어찌 저 사람을 위해 종노릇까지 하겠습니까?”라고 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 뒤로 익성은 의술을 배워 10년 만에 훌륭한 의원이라고 소문이 났다. 어느 고귀한 사람이 陽明을 앓아 허조가 치료했지만 효험이 없었는데, 익성이 허조 앞에서 그 사람을 白虎湯으로 치료했다. 허조는 자신도 그 처방을 알았지만 늙어서 겁이 많아 감히 행하지 못하였다며, 자신은 의원노릇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또한 어느 벼슬아치의 아들이 갑자기 병어리가 되자, 익성이 동전 한 닢과 파두씨 몇 알을 병어리의 콧구멍에 넣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재채기를 한 번 하며 병어리의 말문이 트였다. 익성은 가난하

26) 이 설화에 나타난 축골증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분석은 이인경, 『治病說話 :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者를 향한 他者の 시선』, 『어문론총』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67~169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고 천하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힘을 다해 치료하였는데, 예절로써 대하지 않으면 비록 정승이나 판서 같은 귀한 사람이라도 그를 굽히게 하지 못하였다. (『호산외기』)

비록 가난하여 벼슬아치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고 있을지언정 허조의 담배불 심부름은 못하겠다는 이익성의 강한 자의식은, 역설적으로 그의 신분적 열등감을 노출하고 있다. 익성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허조에게 담배불을 붙여주는 수고로움 정도는, 孝를 至高한 가치로 내세운 조선의 청년인 익성이 長幼有序와 경로의식을 조금만 발휘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도 있었을 법하다. 게다가 자신이 신세를 지고 있는 집주인의 치료를 위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익성은 허조가 양반도 아닌 의원 신분인 주제에, 병자를 치료하는 중에 담배까지 피우며 거들먹대는 모양이 비위에 거슬렸을 것이다. 그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얻고 떠난 익성은 십 년 후에 허조도 치료하지 못한 병자를 살려냄으로써 멋지게 역전승을 거둔다. 서술자는 익성이 미친한 이들을 정성껏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설화 안에는 익성이 고귀한 신분의 병자를 치료한 사례들만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급격히 상승된 익성의 사회적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서술의도가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자신에 대한 예우를 엄격히 따져서 선별적으로 仁術을 베풀었다는 것은, 익성이 미친한 신분 때문에 받은 자존감의 상처를 짐작케 한다. ‘예절로써 대하지 않으면 비록 정승이나 판서 같은 귀한 사람이라도 그를 굽히게 하지 못하였다.’ 라는 서술은, 권력자에게 굴종해야 했던 당시 의원들의 처지를 반증하면서 이익성의 반항적인 처세를 강조한다. 당시 높은 신분의 병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순간에조차 의원에게 고자세로 일관했던 모양이다. 익성은 그런 벼슬아치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뛰어난 의술을 통해서 신분적 열세를 극복하고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히 설욕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이익성이 ‘병자가 어떤 태도와 신분을 지녔는가를 따

지지 않고 모든 人命을 소중히 여겨서 仁術을 크게 베푸는'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이 안타깝다. 이는 活人이라는 위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사회적 기여를 충분히 그리고 정당하게 인정해주지 않았던 당시 신분사회의 부조리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Ⅲ. 醫員에게 投射된 他者的 慾望의 二重性

아래 설화에서는, 의원이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術士의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생사를 맞바꾸는 일을 시도한다.

17) 어떤 여인이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명의를 찾아갔다. 명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인이 친정에 다녀오면 치료약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친정으로 가던 중 여인은 능금장수를 만나 겁탈을 당하였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 능금장수가 죽어있었다. 명이는 이미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여인에게 喪夫煞이 끼어서 남편이 아팠던 것인데, 여인을 겁탈한 남자가 대신 죽었으므로 남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이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으니 그 죄를 받겠다고 하였다. 명이는 7년 후에 죽었고 여인의 남편은 수십 년을 더 살았다.²⁷⁾

의원은 여인을 친정에 다녀오게 하여 성폭행을 당할 기회를 만든다. 그 결과 여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고, 한 남자는 성폭행을 저지른 죄로 급사했으며, 의원은 이 모든 일을 방조한 죄로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였다. 그 결과 이런 모든 희생을 통해서 여인의 남편인 병자가 드디어 長壽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 설화의 결말이다.

그런데 이런 서사적 논리는 자못 석연치 않다. 이 설화가 담고 있는 '누군가를 살리려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 취해야만 한다.'는 代續論의 세계관은 상당히 복잡한 윤리문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을 저지

27) 『구비대계』 1-6, 522면, <남 살리고 대신 죽은 명이>, 유병식 구연.

른 자가 그에 대한 응보로 자신의 수명을 재촉했다는 서사적 논리는 일단 그렇다고 해도, 生面不知의 타인을 살리기 위해 의원이 이런 희생까지 해야만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남편의 병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요청에, 명의는 한참을 망설이며 심리적 갈등을 겪은 끝에 해법을 제시해준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의술도 베풀지 않은 채 병자를 살려낸다. 과연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해야만 할지 그리고 그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는 희생을 감내할 것인지 고민하며, 의원은 한참을 망설였을 것이다. 의원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인의 사정을 들어주어야 했을까?

의원이 판단하기에 병자의 疾苦가 운명 때문이라면 이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의 고뇌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의원이 병자를 살려내는 대신 자신의 수명을 줄이는 희생을 자처한다는 서사전개는, 구비설화의 전승자들이 의원을 단순히 의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민중의 고난을 총체적으로 해결해주는 헌신적인 구원자로서 希求하였음을 보여준다.²⁸⁾

아래의 문헌설화에서도 위와 유사한 갈등상황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18) 한 사람이 병이 들어 여러 달 고생했는데, 안덕수가 그 변화하는 증세에 따라 약을 쓰니 다섯 번 모두 효험이 있었다. 안덕수의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 병자는 나의 대대로 원수이므로 상제에게 호소하여 내가 죽이기로 승낙을 받았는데, 내가 병을 줄 때마다 공이 증세에 따라 약을 써서 다섯 번 죽음을 피하니, 내일은 다시 여섯 번째 병을 주려고 하오. 만일 또 공이 병에 따라 약을 써서 치료하면, 그 다음은 당신을 원수로 삼아서 병들게 할 것

28) “운명론적 세계질서를 존중하지만 仁術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자신의 생명과 병자의 생명을 맞바꾸는 의원의 희생이 부각되고 있다. 의원에게 투영된 구비설화 전승자들의 욕망이 문헌설화의 그것보다 한층 더 이상적이며 낭만적인 동시에 가혹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구비설화를 전승했던 민중들이 의원이란 존재를 단순히 의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민중을 위한 자기희생적이며 헌신적인 援助者로서 希求하였던 사정을 짐작케 한다.” 이인경, 앞의 글, 153면.

이오.”라고 말하였다. 꿈을 깨고 있으려니까, 사람이 와서 그 환자가 다시 발병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안덕수는 병을 핑계를 대고 왕진을 가지 않았다. 그 환자는 곧 죽었다.

* 아이! 비록 邪氣가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하나. 이는 반드시 사람의 榮衛가 허함으로 인해 사기기 성대해진 것이니, 사람이 좋은 약으로 막을 수 있으면 사기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이다. 애석하도다! 덕수가 한 꿈에 미혹되어 마침내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음이여. (『於于野談』 安德壽 昭敬大王朝老神名醫也)

안덕수는 다섯 번이나 병자를 살려내는 공을 세웠지만, 여섯 번째에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치료를 포기하고 만다. 서술자는 이런 안덕수의 박약한 직업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다섯 번이나 병을 치료한 공로는 온데간데없이, 여섯 번째 왕진에 응하지 않은 것에 비난이 차갑게 쏟아지고 있다. 앞의 구비설화처럼 서사가 전개된다면, 안덕수는 병자를 여섯 번째 치료하여 살려낸 후에 그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후에 다시 발병한 병자는 안덕수가 이미 죽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말았을 것이다.

안덕수가 꾸 꿈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현실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짙어 보인다. 그러나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다는 儒學의 세계관으로 볼 때에, 신이한 꿈의 진실성이나 영험함을 인정하는 것은 서술자의 치열한 자기검열의 망을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서술자는 안덕수가 꾸 꿈의 진정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병자의 치료를 포기한 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는 평결을 첨부하고 있다.²⁹⁾

그렇다면 이 설화가 전달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사실 서술자의 평결부분

29) “야담집 편찬자는 평결을 통하여 사대부의 일반적인 생각과 편찬자 자신의 개인적 생각, 본 이야기의 세계관의 괴리를 조정하였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야담에서 평결은 구연과정의 갖가지 이야기들을 두루 기록할 자리를 확보해주었다 할 수 있다. 편찬자는 평결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지기에 본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강욱, 『이중 언어 현상으로 본 18-19세기 야담의 구연·기록·번역』, 『고전문학연구』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346면.

을 제거하고 나면, 인간의 疾苦나 수명은 전생의 업보와도 관련된 것이기에 의술이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生死에 대한 책임을 의원에게 전적으로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말이 된다.³⁰⁾ 그러나 서술자는 평결을 통해 설화의 주제를 그와 정반대로 바꾸어 놓았다. 즉, 의원은 병자의 치료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바, 때로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의원의 직업적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의원에게 병자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 보인다. 의원의 생명 역시 병자의 생명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두 설화는 의원들을 他者化하면서 이들을 향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일반적으로 분출하는 편향된 서술시각을 공유하고 있다.³¹⁾

한편 다음의 문헌설화들에서는 이타적인 희생과 봉사의 표상으로 인식되는 명의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들은 돈벌이에 연연하지 않고,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오직 濟民에 보람과 가치를 두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³²⁾

30) 이와 유사한 문제를 교육학의 영역에 건주어서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성장은 타고난 능력(nature)과 양육(nurture) 두 가지 요인 중 어느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하는 논쟁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교육학의 입장에서 ‘인간의 능력은 모두 유전자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후천적 노력을 통해 인간을 성장시키려는 교육학의 목표나 실천이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건강과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결정론적 사고는, 결국 의원으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주장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교육자가 동일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든 피교육자가 동등한 발전과 성취를 보여주지 못할 때에, 그 원인과 책임을 전적으로 교육자에게서 돌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원의 인간적 노력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환자의 생사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원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31) “자기 경험을 남에게 이야기 하는 궁극적 목표는 상호소통과 공감이다. 경험에 대한 공감을 원동력으로 하여 마침내 그 경험이 동반하는 가치·지혜·윤리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자기 경험을 진술하는 사람의 소망을 수화자가 받아들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강욱, 『이중 언어 현상으로 본 18·19세기 야담의 구연·기록·번역』, 『고전문학연구』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347면.

19) 백귀린은 의술에 능했다. 병자의 가족이 찾아오면 어디든지 가지 않는 곳이 없었지만, 그러나 돈을 받지 않았다. 집이 가난해 근근이 살아가며, 옷이 헤어져 몸을 가리기 어려웠다. 중국 사신이 와서 통역관에게, “저 늙은 관원은 누구인데 衣冠이 저렇게 험하냐?”라고 물었다. 통역관이 그 내력을 설명하니, 사신은 안색이 변하면서 존경했다. (『용재총화』)

어디든지 달려가서 병자를 치료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던 백귀린은 너무 가난해서 옷이 다 헤어져서 몸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한다. 의술에 능했지만 그 능력을 代價없이 제공했음이 강조되면서, 백귀린은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 異人처럼 묘사된다. 늘그막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기본적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기꺼이 무료진료를 나섰다. 그래서 백귀린은 조선을 알잡아보기 십상이었던 중국사신까지도 존경을 표했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이 설화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면, 그렇게 자신의 놀라운 의술로 병자를 돌보는 데에 평생을 바친 노인에게 제 몸 하나 가릴 소박한 의복조차 마련해주지 못한 조선사회의 부조리함이 드러난다. 개인의名利를 좇지 않고 오직 남을 돕는 데에 헌신한 善人들의 늘그막이 이보다는 훨씬 덜 초라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본래 그런 사람이니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도록 놔두는 게 당연하며, 또 그래야만 그는 영원히 훌륭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식의 他者的 시선은 참으로 비정하고도 부당한 것이다. 평생 사회에 봉사하느라고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偉인들의 노후는 그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위인들의 회생과 헌신을 높이 기리며 당연한 듯 요구하면서, 그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외면해버리는 공동체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정의롭지 못하며 부조리하다.

22) 太醫 백광현은 인조 때에 태어났다. 본래 가난하여 남루한 옷차림으로

32) 광의숙, 『한국의료설화 연구』, 동의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논문, 2008, 147~148면에서 民衆醫들의 이런 면모를 지적하였다.

남에게 구걸하니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발로 차기도 하며 업신여겼다. 처음엔 말(馬)의 병을 잘 고쳤는데, 오직 침만 써서 치료하였다. 方書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오래될수록 손에 익어 사람의 종창에도 신기한 효과가 있었다. 그에 게 효험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차츰 많아졌으므로, 병자들이 날마다 그의 대문에 모여들었고, 백광현 역시 노력하여 명성을 날려 神醫라고 불렸다. 숙종 때 御醫로 뽑혔는데, 공을 세울 때마다 품계가 더해져서 종 1품에 이르렀다. 벼슬도 현감을 지냈다. 그는 貴賤과 親疎를 가리지 않고 병자의 부름이 있으면 곧 달려가 정성과 능력을 다하여 병이 좋아진 것을 본 뒤에 그쳤다. 결코 늙고 또 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핑계를 대지 않았으니, 대개 그의 천성이 그러하였다. 내(유재건) 나이 열다섯 때에 외삼촌이 입술에 종기를 앓았다. 白太醫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이라 하였는데 결국 죽었다. 이렇듯 그의 진단은 늙은 노인이 되어서도 털끝만한 실수가 없었다. (『완암집』)³³⁾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醫官을 잡류라 여기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의관의 승진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비판을 제기하였고, 특히 왕의 결정사항에 대해 간원들은 의원의 승직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여 왕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왕이 백광현에게 현감 벼슬을 내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이 벌어졌다.³⁴⁾ 그러나 왕들은 사대부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술의 권면과 장려를 위해 의관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현직에 임명하였다. 왕실과 백성들의 보건을 위해서 유능한 의원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⁵⁾ <조선왕조실록>

33) 유재건 엮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항견문록』대우학술총서106, 민음사, 1997, 434~436면.

34) 『조선왕조실록』 숙종 15권, 10년(1684 갑자년) 5월 2일(정묘일) 첫 번째 기사 - 醫官 백광현을 특별히 강령 현감에 임명하였다가 이어 포천 현감으로 바꾸었다. 의관의 수령 임명이 여러 번 中批 (인용자 주 :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금의 特旨로 벼슬을 주던 일)에서 나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로 이미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던 데다가 백광현이 미천한 출신이고 또 글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별안간 이 벼슬을 임명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모두 놀랐으며 臺論이 거듭 일어났으나 끝내 윤택하지 않았다.

35) “왕실에서 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실력 있는 의관선발에 중점을 두었던 일차적 목적은 바로 왕실의 진료와 건강 때문인 것 같다. 의관이 전염병이나 괴질을 치료할 때는 구체적인 구출성공과를 까다롭게 평가하여 시상을 의논한데 비하여, 왕실의 효과적 인 치료의 공로로 인한 경우는 그 공로가 작아도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어 고위 관

에서도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³⁶⁾

그도 그랬을 것이, 남루한 거지꼴로 구걸을 하며 발길질을 당하던 천한 신분의 백광현이 놀라운 인생역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말을 치료하는 馬醫에서 출발하여 어의가 되고 드디어 종1품의 품계에까지 오르게 된 立志傳的인 인물인 백광현은, 신분이 달라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귀천과 친소를 가리지 않고 정성껏 병자를 돌보았다고 한다. 변함없이 겸손하고 성실한 그의 태도가 칭송되고 있는 것은, 그런 인물이 드물었던 당시 세태를 비판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사회적 기여가 대단했던 백광현일지라도 그가 현감의 벼슬에 오르는 것은 사대부들이 용납하기 어려웠으니, 그것은 당시에 醫業을 천하게 여겼었던 때문이다. 인간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본래 미천한 신분인 의원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대부들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난다. 벼슬을 내릴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백광현이 글을 모르기 때문임을 내세운 것에서, 사대부들의 신분적 자아정체감과 특권적 우월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20) 김응립은 嶺右사람으로 글자는 모르나 의술이 뛰어났는데 겉모습으로 병세를 알아보았다. 金이 침술에 능하여 언제나 가축부대에 갖가지 침을 넣어 다니며 스스로 鍼隱이라 하였다. 어느 날 남루한 노파가 찾아와 치료를 청하니 金이 여러 날 왕래하며 정성껏 치료하였다. 어떤 이가 그것을 보고 왜 부귀한 사람이 아닌 가난한 백성을 치료하느냐고 묻자, 濟民하는 일이야말로 뜻

품과 관직을 제수 받았고 나아가 현관 실직에도 대거 임명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의관의 사회적 지위는 한층 높아갔다. 그러나 의관을 잡류라 여기는 사대부들은 의관의 승진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비판을 제기하였고 특히 왕의 결정사항에 대해 간원들은 의원의 승직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여 왕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김진, 『조선시대 醫官選拔 -영조·정조시대 <醫科榜目>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104,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77~80면 참조.

36) 『조선왕조실록』 성종 282권, 24년(1493 계축년) 9월 16일(정미일) 4번째 기사 - 전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의업을 천하게 여기므로 사람들이 즐겨 入屬하지를 않는다. 그 전에 권찬은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고 유원로는 현직에 두루 서용되었으니, 어찌 오래 의원이라고 하여 顯官에 제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의업의 일은 국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니, 그대들이 비록 말한다 하더라도 고칠 수 없다.”

깊은 것이라 하였다. (『동야회집』 周行閭里囊針)

21) 조광일은 침으로 모든 병을 치료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가난한 환자에게 즉시 달려가서 치료하였다. 사람들이, 왜 귀한 사람을 사귀어서 공명을 취하지 않고 여항의 소민을 쫓아다니는지 묻자, ‘재상은 道로써 백성을 건지고 醫家は 術業으로써 사람을 살리니 그 功이 같다. 따라서 내가 이 술업을 즐겨하는 것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 것이기에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醫術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권세가 있거나 부잣집으로만 왕진을 가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구제했으나, 자신이 생명을 구한 자가 1만 명이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 했다. * 슬프다. 조생이여, 의술이 높되 이름을 구하지 않고 벼룩이 넓되 갱기를 바라지 아니하니 그 타인에서 어찌 멀도다. (『靑邱野談』 活人病趙醫行鍼)

글자를 몰랐던 김응림이나 조광일은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달려가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의술을 펼친 의원들이다. 의술로 濟民하는 것이야말로 뜻 깊은 것이라는 언술에서는 民衆醫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물씬 묻어난다. 이는 당시에 대다수 의원들이 그런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세태를 역설적으로 반영한다.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文盲인 탓에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민중의들은 대개 藥醫가 아닌 침술에 능한 鍼醫들이었다. 그 덕분에 그들은 값비싼 약재를 쓰지 않고서도 가난한 민중들을 치료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 기여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낮은 신분이란 이유로 賤視되었다. 특히 문헌실화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가난하고 소외된 자로서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임이 강조되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놀라운 의술을 터득하여 근근이 생계를 꾸려간 성실한 백성으로 그려진다. 그들이 그렇게 천대를 받으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사회적 약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승자(서술자)들은 ‘훌륭한 의원이라면 마땅히 그들의 의술을 무상으로 베풀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타자적인 욕망을 표출하곤 한다. 정작 자신은 그런 희생을 감내할 용의가 전혀 없으면서도, 의원들을 향해서는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치러야 했던 그런 희생과 봉사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기 십상이다.

IV. 마무리

치병설화에서 의원이란 존재는 주체가 되지 못한 채 타자화 된 대상으로서 형상화되고 있다. 그들은 병자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당연히 그리고 무한하게 요구받거나, 의원으로서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사대부들의 嫉視에 찬 냉소적 평가를 감내했던 가여운 존재들이기도 했다. 난치병이나 불치병 앞에서 무능력해질 때에는 가차 없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 목숨까지 위협받는 불안한 존재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이 펼친 仁術의 희생과 봉사는 자칫 致富와 입신양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폄하되거나 당연한 직무수행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는 과거 냉정하고 비정한 신분사회의 질서 속에서 의원들이 감당해야 했던 二重苦를 짐작하게 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명의를 신선에 가까운 神醫나 이인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설화들에서는 의원들이 인간이 아닌 허구적 존재로 신격화되며 타자화 됨으로써, 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공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치병설화의 서술시각에는, 의원들을 향해서 내심 자신들보다 신분적으로 미천한 존재라고 여기고 한껏 무시하면서도 그들이 지닌 의술의 도움은 무상으로 받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이 숨겨져 있다. 전승자들의 이런 이중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타자적 욕망이 치병설화의 서사적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갈급한 결핍을 해결해줄 누군가를 절실히 희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고 나면 원조자의 도움을 망각하거나 당연시하는 속물근성을 지니고 있음을 치병설화를 통해서 새삼 자각하게 된다.³⁷⁾ 또한

인간은 他人의 사회적 성취와 인생역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찬양해주기 보다는, 왜곡된 시선으로 질시하고 評價切下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상대적 우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심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문헌설화의 서술자가 주목한 의원들과 구비설화를 전승해온 민중들이 마주치거나 상상한 의원들의 형상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문헌설화에서는 미천한 신분 출신으로서 갑자기 출세를 한 명의들에 대한 사대부 계층의 폄하와 질투의 시선이, 구비설화에서는 의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에 대한 민중의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부담감이 강하게 드러난다. 문헌설화의 서술자는 中人 이하의 신분이었던 명의들의 벼슬아치로서의 출세에 대한 선망과 질시라는 이중적 시선을 드러내는 반면, 구비설화의 전승자들은 의원들의 신통한 의술을 접하고픈 소망과 무료진료에 대한 희구를 보여준다. 또한 구비설화에는 인간의 생명을 지고한 가치로 여기는 ‘진정한 仁術人’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名利를 생명보다 앞세우는 세속적인 의원’들로부터 민중이 받았던 심리적 상처도 여실히 투영되고 있다. 이런 상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다.³⁷⁾

요컨대 이런 모든 다채로운 서술시각들은 결국 의원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인바, 타자의 욕망에 의해 굴절된 결과물인 것이다. 동양에서 의원이란 그저 병을 고치는 技術人이 아니라 도덕성을 갖춘 인격자일 것을 요구받아

37) “구비설화라는 갈래는 높은 교양을 쌓은 지식인들의 고급문학이 아니며, 심오한 철학을 전달하기 위한 계몽성 강한 윤리적 작품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장삼이사들의 입을 통해 전승되어 온 그야말로 민중이 향유해온 기층문화인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엔 엄중한 자기성찰이나 도덕적 반성이 결여된 채로, 인간을 짓눌러왔던 각종 윤리적 금기들을 가상현실에서나마 철저히 破棄해보려는 민중의 위험한 욕망이 발칙한 상상력을 통해 여지없이 분출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설화 속에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동물적이고 추악한 공격성이 노출되기도 함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인경,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 속의 ‘소통·공감·보살핌윤리’』, 『국문학연구』27, 국문학회, 2013, 246면.

38) 미국 내과의사협회가 1999년에 발표한 프로페셔널리즘 프로젝트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다음 7가지 증상을 제시하고 있다. “권력의 남용, 거만함, 탐욕, 거짓진술, 장애, 성실성의 결여, 환자보다 의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일” 정유석,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진료자율권』,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7권2호(통권 12호), 2004, 141~150면.

왔다.³⁹⁾ 의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란 인간의 육체에서 벌어지는 각종 조화롭지 못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적 病理現象을 해결해내는 것은 사회지도자들과 전문인들이 감당할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치병설화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고통을 해결하는 사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仁德濟世의 上醫의 형상을 숙고하게 한다.⁴⁰⁾ 그리고 인간의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보다 공정하고 온당한 시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39) “동아시아 전통에서 의사는 사람의 몸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보다는 그 지식을 내재화한 도덕적 행위 주체로 표상된다.”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휴머니스트, 2007, 117~120면.

40) “전통적으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일, 사람을 구해내는 일, 세상을 다스리는 일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 삼았고, 이것으로 의사의 우열을 평가했다. ‘上醫는 나라를 고치고 中醫는 사람을 고치며 下醫는 병을 고친다(『備急千金要方』『診候』)’고 한 것이다. 백성들을 인애한다는 관점에서 의학과 유학의 둘은 공동의식을 갖는다. 의학이 수행하는 治病·救人·濟世의 공능이 의술이 인술로 불리는 까닭이다.” 임은, 문제곤 역, 『한의학과 유교 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9, 94~95면.

참고문헌

1. 자료

- 『韓國口碑文學大系』 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대동야승』 전 18권, 민족문화추진회, 1983.
『(국역)기문총화』2, 김동욱 역, 아세아문화사, 1999.
『(국역)청야담수』1-3, 김동욱 역, 보고서, 2004.
『(주해)청구야담』 I · II · III, 최웅 역주, 국학자료원, 1996.
『(국역)동패락송』, 김동욱 역, 아세아문화사, 1996, 1~518면.
司馬遷, 『扁鵲·倉公列傳』, 『史記列傳』, 남만성 역, 을유문화사, 1983, 488~515면.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외 옮김, 돌베개, 2009, 1~859면.
유몽인, 『어우야담』, 이월영·시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6, 1~640면.
유재건, 『이향견문록』 대우학술총서106,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민음사, 1997.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계명문화사, 1987.
조희룡, 『壺山外記』,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한길아트, 1999.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 (조선왕조실록 검색사이트)

2. 단행본

-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풍경』, 푸른역사, 2003, 10~394면.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휴머니스트, 2007, 3~239면.
강영민, 『조선왕들의 생로병사』, 아가출판사, 2999, 9~355면.
김준형, 『한국 패설문학 연구』, 보고서, 2004, 1~406면.
김현룡, 『한국문헌설화』1권, 건국대출판부, 1998, 3~503면.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1~318면.
마종기 외, 『의학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2004, 5~263면.
이강욱, 『한국야담연구』, 돌베개, 13~635면.
이인경,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인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류음), 『인문의학, 고통! 사람과 세상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8.
인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류음), 『인문의학, 인문의 창으로 본 건강』, 휴머니스트, 2008.
정민성, 『우리 醫藥의 역사』, 학민사, 1990, 11~347면.
임은, 『한의학과 유교 문화의 만남』, 문제곤 역, 예문서원, 1999, 1~344면.

3. 논문

- 강진옥,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1983, 593~610면.
- 곽의숙, 『한국의료설화 연구』, 동의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논문, 2008.
- 구현희·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명의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1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379~415면.
- 김명수, 『구비 명의전설 연구』, 경산대학교 석사논문, 1997.
- 김성수, 『朝鮮後期 醫藥政策의 성격』, 『동방학지』139,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7, 47~76면.
- 김양수, 『조선시대 議員實態와 지방관 진출』, 『동방학지』10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9, 163~248면.
- 김영주, 『조선한문학에 나타난 痘疫』, 『한문교육연구』2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515~543면
- 김인락·홍원식, 『동양의학의 생사론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3,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89, 1~150면.
- 김준형,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39, 동방한문학회, 2009, 53~89면.
- 김진, 『조선시대 醫官選拔 -영조·정조시대 <醫科榜目>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104,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1~93면.
- 박수진·이선아·안상우, 『곽향정기산에 얽힌 허준설화』,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3권 1호(통권 19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69~75면.
- 원보영, 『조선후기 지역 민간의료체계의 발전사』, 『국사관논총』107, 국사편찬위원회, 2005, 104~141면.
- 이강욱, 『이중 언어 현상으로 본 18·19세기 야담의 구연·기록·번역』, 『고전문학연구』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333~372면.
- 이경희, 『문헌에 나타난 명의설화의 유형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13권 3호(통권 21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 이원걸, 『야담의 회자화 경향에 대하여』, 『한문학보』11권, 우리한문학회, 2004, 297~360면.
- 이인경, 『口碑 ‘治病說話’의 의미와 기능』, 『국문학연구』23, 국문학회, 2011, 195~226면.
- 이인경, 『治病說話;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者를 향한 他者의 시선』, 『어문론총』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43~180면.
- 이인경,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 속의 ‘소통·공감·보살핌윤리』, 『국문학연구』 27, 국문학회, 2013, 233~263면.

- 이주영, 「19세기 疫病 체험의 문화적 형상」, 『한국어문학연구』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39~68면.
- 이지연,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정유석,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진료자율권」,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7권2호 (통권 12호), 2004, 141~150면
- 최기숙, 「『호산외기』의 서술방식과 인간관: 19세기 중인 문화의 건강성과 고유성에 대한 발견」, 『열상고전연구』22, 열상고전연구회, 2005, 233~265면.
- 최기숙, 「이인, 소수 문화, 그 차별화 전략과 동화의 처세술 -18·19세기 야담집 소재 ‘남성 이인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3,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2, 221~266면.
- 최중성, 「儒醫와 巫醫 -유교와 무속의 치유-」, 『종교연구』 26, 한국종교학회, 2002, 151~174면.
- 황임경, 「질병체험과 서사」, 『의철학연구』제 10, 한국의철학회, 2010, 3~28면.

A Study on the various views of doctors
depicted in *old Korean Remedy Stories*

Lee, In-kyung

This paper analyzed the various descriptive perspectives and insatiable desires of doctors, depicted in the old Korean Remedy Stories which are transmitted orally or included in books. As a result, I found that the storytellers were in awe of excellent doctors who had cured the patients' incurable diseases, and they had strong desires of contacting the excellent doctors and curing their own diseases, as well.

In the old Korean Remedy Stories included in books, the narrators usually shows their jealousy of the doctors who had become successful in spite of difficult childhoods or poor financial situations resulted from their lowly status. Meanwhile, in the old Korean Remedy Stories transmitted orally, I found the patients' worries about the medical expenses or doctor's fee which they should pay.

And, the stories, both transmitted orally and included in books, did show not only the doctors' having sense of inferiority and unstable ego-identity result from their low social status, but also their professional sense of duty and crisis as a doctor. Which presented through the various view points of the storytellers who had described the doctors' inward consciousness in the stories.

Meanwhile, I found, in the stories, the inconsistent and improper ideas of the doctors that reflected the patients' selfish greed. The stories purported that doctors must have such professional sense of duty that they willingly take the sacrifice of giving up their own lives for saving the patient's life. Besides, the storytellers purported that the good doctors should properly give their medical services free for the patients, even though they used to look down on the doctors because of their low social rank.

In conclusion, I found the old Korean Remedy Stories showed the

self-contradictory and selfish desires for doctors such that the patients and storytellers want the doctors' medical services free, at the same time, they would despise the doctors because of low social rank.

keywords : *old Korean Remedy Stories*(치병설화), doctor, descriptive perspective, folktale, storyteller

접수일자: 2014. 3. 31.

심사기간: 2014. 3. 31.~2014. 5. 10.

게재결정: 2014. 5. 10.